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4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8.(목) 14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4. 8.(목)	담당부서	수출입과
담당과장	신용민 과장(044-203-4040)	담 당 자	김동기 사무관(044-203-4042) 이영석 사무관(044-203-4043)

성윤모 장관, 신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역량 점검회의 개최

① 우리 주요 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져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생명건강, 이차전지 등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② 올해 1분기 수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치 기록

③ 민간 연구기관, 올해 무역 1조불 달성 및 역대 최고 수출액 가능성 언급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4.8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지난해 우리 수출과 유망 성장 산업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 수출 전망**과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

□ 이 날 회의는 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동향과 우리 수출실적**, ② **지난해 新산업 경쟁력 변화**, ③ **'21년 1분기 수출실적 및 향후 전망**, ④ **주요 신산업별* 현황/전망/정책건의 토론** 순으로 진행

*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OLED, 바이오헬스, 배터리

【 新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역량 점검회의 】

◇ 일시/장소 : 4.8일(목), 14:30 ~ 15:30 / 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 참석자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유관기관) 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

- (연구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천일 원장,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
- (업계)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성진 부회장, 셀트리온 양현주 상무,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 연구위원

'20년 전세계 무역 동향 평가(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

□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이하 무역연구원) 지난해 글로벌 교역은 코로나19로 중국·홍콩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 모두가 역성장한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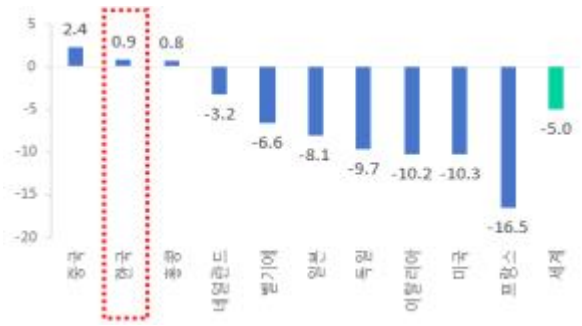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수출 상위 10대국 중 **수출액 증감률은 4위, 수출 물량 증감률은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평가

【 2020년 주요국의 수출 실적 】

순위	수출액 기준(억달러)		증감률 기준(%)	
1	중국	25,911	중국	3.7
2	미국	14,316	홍콩	2.6
3	독일	13,800	네덜란드	△4.8
4	네덜란드	6,745	한국	△5.5
5	일본	6,414	벨기에	△6.2
6	홍콩	5,488	독일	△7.3
7	한국	5,125	이태리	△7.7
8	이태리	4,961	일본	△9.1
9	프랑스	4,883	미국	△12.9
10	벨기에	4,193	프랑스	△14.5

주 : WTO

【 2020년 주요국의 수출물량 증감률(%) 】



자료 : WTO, Merchandise export volume chained indices

□ 무역연구원은 주요국별 회복 속도의 차이는 **각 국의 보유한 수출품목의 포트폴리오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설명

○ '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IT와 보건관련 품목의 호조세**가 두드러진 반면, 수송과 에너지 관련 품목의 수출은 부진을 보였다며,

○ 우리의 **IT와 보건 관련 수출품목의 높은 비중**은 지난해 빠른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분석, 특히 **컴퓨터와 바이오헬스는 낮은 수출비중에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 증가액**을 기록

구 분	반도체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가전
수출 비중(%)	19.4	2.6	2.7	1.5	1.4
수출 증감률(%)	5.6	57.2	51.9	1.3	0.7
수출 증가액(억불)	**52.5**	**48.9**	**47.3**	**0.9**	**0.5**

□ 新산업 중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임

품 목 명	현시비교우위지수(RCA, UN Comtrade Trademap)				
	한 국	중 국	일 본	미 국	독 일
리튬이온 배터리	2.0	1.9	1.1	0.4	0.8
태양광 패널	1.1	2.4	1.3	0.5	0.5
차세대 디스플레이	2.5	1.5	0.9	0.5	0.6
시스템 반도체	1.4	0.9	0.8	1.2	0.3
전기차	1.8	0.2	0.4	1.8	2.3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해당품목이 자국의 전체 수출 품목 대비 비교우위

’20년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비교(산업연구원 발표)

‹ ①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는 성장을 지속

○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지속하며,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 1, 2위를 기록(OMDIA)

	국 가	매출액	점유율
1	한 국	729억불	56.9%
2	미 국	366억불	28.6%
3	일 본	112억불	8.7%
4	대 만	55억불	4.3%

	기 업	매출액	점유율
1	Samsung Electronics	469억불	36.6%
2	SK Hynix	259억불	20.2%
3	Micron Technology	222억불	17.3%
4	KIOXIA Corporation	108억불	8.4%

○ (시스템 반도체) 지난해 수출액은 17.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인 303억불 기록**, 이는 작년 5위 품목인 철강(266억불)을 넘어서는 실적

- 반도체 수출內 시스템 반도체 비중 **30% 돌파**(’19년 27.4%→’20년 30.5%)

자동차 친환경차·SUV 등 고부가 차량의 선전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 (자동차 전체) 수출액 기준, 세계 4위로 순위 상승(ITC trademap)

’19년			’20년		
순 위		수출액	순 위		수출액
1	독 일	1,434억불	1	독 일	1,222억불
2	일 본	980억불	2	일 본	810억불
3	미 국	562억불	3	미 국	456억불
4	캐나다	407억불	4	한 국	356억불
5	한 국	405억불	5	캐나다	323억불

○ (친환경차) 판매 대수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19년 7위에서 ’20년 4위로 3계단 도약**(Marklines.com)

순위	업체명		’19년 순위	’19년 판매대수	’20년 판매대수	비중(%)	증감률(%)
1	테슬라	美	1	304,783	442,334	15.0	45.1
2	폭스바겐 그룹	獨	8	123,152	381,406	13.0	211.1
3	GM 그룹	美	9	94,889	222,116	7.5	134.1
4	**현대기아**	**韓**	**7**	**124,114**	**198,487**	**6.7**	**59.9**
5	르노-닛산 연합	佛&日	4	143,884	194,158	6.6	34.9

디스플레이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한 가운데, 고부가가치인 OLED의 비중은 지속 확대

○ (OLED) 지난해 수출은 **109억불로 역대 최대치**, 디스플레이內 수출 비중도 **처음으로 60%을 넘기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OMDIA) 】

순위	국 가	'20년
1	한 국	36.8%
2	중 국	33.8%
3	대 만	22.4%
4	일 본	3.8%

【 OLED 시장 점유율(OMDIA) 】

순위	국 가	'20년
1	한 국	85.8%
2	중 국	13.2%
3	대 만	0.5%
4	일 본	0.4%

【 OLED 수출액(억불) 】



〈 ② 유망 신산업의 급성장 〉

바이오헬스

진단키트 호조로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액 기준으로 우리 10대 수출 품목에 첫 진입

* 수출액(억불) : ('16) 45 → ('17) 75 → ('18) 84 → ('19) 89 → ('20) 141

○ (의약품, 의료기기) 모두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무역 통계)

	'19년	'20년	증가율
의약품	50억 달러	83억 달러	+64.6%
의료기기	39억 달러	56억 달러	+44.7%

○ (진단용 제품) 지난해 수출액은 진단키트의 선전으로 8.5배 증가하면서 글로벌 수출 순위가 19위에서 5위로 급상승(ITC trademap)

진단용 제품 (HS 3822.00)

◇ 정의 : 의료현장과 실험실 등에서 생화학적 진단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조제시약

◇ 품목 : 혈당측정용 검사지, 알레르기 진단 시약, pH 측정용 리트머스 검사지 등
특히, **PCR(중합효소연쇄반응) 방식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본 항목에 분류**

'19년				'20년				'20년 증감률
순 위		수출액	점유율	순 위		수출액	점유율	
1	미 국	76억불	31.3%	1	미 국	92억불	27.5%	21.5%
2	독 일	43억불	17.7%	2	독 일	54억불	16.2%	26.6%
3	네덜란드	25억불	10.3%	3	네덜란드	38억불	11.4%	53.1%
4	영 국	20억불	8.1%	4	영 국	28억불	8.3%	41.6%
5	아일랜드	15억불	6.2%	5	한 국	**22억불**	**6.5%**	757.6%

자동차 배터리 지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

○ **(배터리 판매량)** 전 세계 순위 **3위에서 2위에 등극**(SNE)

'19년				'20년				'20년 증감률
순 위		국적별 사용량	점유율	순 위		국적별 사용량	점유율	
1	중 국	64.9GWh	55.0%	1	중 국	62.1GWh	43.5%	△4.3%
2	일 본	32.3GWh	27.4%	2	한 국	**49.5GWh**	**34.7%**	**162.5%**
3	한 국	**18.9GWh**	**16.0%**	3	일 본	30.0GWh	21.0%	△7.3%

○ **(기업별 판매량)** 우리 기업들의 **판매용량이 모두 전년대비 80%이상 증가**하며, 한국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SNE)

【 기업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단위 : GWh) **】**

순위	기업명		'19년	'20년	증감률	'19년 점유율	'20년 점유율
1	CATL	中	32.5	34.3	5.4%	27.6%	24.0%
2	LG에너지솔루션	韓	**12.4**	**33.5**	**171.5%**	**10.5%**	**23.5%**
3	파나소닉	日	28.8	26.5	△8.2%	24.4%	18.5%
4	BYD	中	11.1	9.6	△13.5%	9.4%	6.7%
5	삼성SDI	韓	**4.4**	**8.2**	**85.3%**	**3.8%**	**5.8%**
6	SK이노베이션	韓	**2.1**	**7.7**	**274.2%**	**1.7%**	**5.4%**
7	AESC	中	3.9	3.8	△3.1%	3.3%	2.7%
8	CALB	中	1.5	3.4	127.6%	1.3%	2.4%
9	Guoxuan	中	3.2	2.5	△22.8%	2.7%	1.7%
10	PEVE	日	2.2	2.0	△8.1%	1.9%	1.4%

SSD(저장장치) 수출액 기준, 2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1위에 등극

○ **(SSD)** 비대면 경제특수가 이어지며 **데이터센터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순위 1위에 등극**(ITC trademap)

'19년			'20년		
순 위		수출액	순 위		수출액
1	대 만	72억불	1	한 국	**101억불**
2	한 국	**47억불**	2	대 만	89억불
3	미 국	28억불	3	미 국	46억불

‹ ③ 기존 산업의 경쟁력 유지 ›

가 전 주요 품목들에서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 1~2위 유지**

【 '20년 기업별 시장 점유율 (판매대수 기준, 후지키메라) 】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기 업		점유율	기 업		점유율	기 업		점유율	기 업		점유율
1	삼성전자	20.8%	1	삼성전자	21.4%	1	Haier	18.4%	1	Midea	15.3%
2	애플	16.8%	2	LG전자	14.0%	2	삼성전자	9.8%	2	LG전자	12.9%
3	화웨이	13.6%	3	하이센스	7.2%	3	LG전자	9.1%	3	삼성전자	11.7%
4	샤오미	12.8%	4	TCL	6.4%	4	월풀	7.9%	4	Haier	9.0%
5	오포(OPPO)	11.2%	5	샤오미	5.6%	5	하이센스	7.3%	5	월풀	9.0%

철 강 생산량 기준, **글로벌 순위 4위 유지 유력**(일부 미발표수치 有)

(단위 : 백만톤, 철강협회)

	'19	'20e			
			순위	전년비 증감률(%)	비중(%)
전세계	439.4	393.5	-	△10.5	100.0
중 국	63.8	46.9	1	△26.6	11.9
러시아	29.5	31.4	2	6.4	8.0
일 본	33.1	29.7	3	△10.2	7.6
한 국	30.4	28.9	4	△5.0	7.3

선 박 수출액 기준, **지난해 글로벌 순위 2위 유지**(ITC trademap)

'19년			'20년		
순 위		수출액	순 위		수출액
1	중 국	245억불	1	중 국	217억불
2	한 국	189억불	2	한 국	187억불
3	일 본	138억불	3	일 본	108억불

'21년 우리나라 수출 전망(현대경제연구원 발표)

□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금년 1분기의 수출 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수출액 및 교역액 등을 전망**함

○ 금년 1월부터 3개월 연속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해당 월의 역대 1~2위 실적**을 달성한 결과, 올 1분기의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는 역대 1분기 최고액을 경신**

구 분		'21.1월	'21.2월	'21.3월	1분기
총수출액 (증감률)		480.2억불 (+11.4%)	448.1억불 (+9.5%)	538.8억불 (+16.6%)	1,467억불 (+12.7%)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		21.3억불 (+6.4%)	23.0억불 (+26.4%)	22.4억불 (+16.6%)	22.2억불 (+16.1%)
역대 순위 (당월 또는 당분기간 비교시)	총수출	역대 1월 중 2위	역대 2월 중 2위	역대 3월 중 1위	역대 1분기 중 1위
	일평균	역대 1월 중 1위	역대 2월 중 1위	역대 3월 중 1위	역대 1분기 중 1위

○ 특히, 올해 1분기 실적은 **유일하게 年수출액 6,000억불을 초과했던 '18년도 1분기의 실적을 상회**

【 1분기 기준, 총 수출액과 일평균의 역대 순위 】

	1위	2위	3위
총 수출액	**'21년 1분기 (1,467억불)**	'18년 1분기 (1,451억불)	'14년 1분기 (1,375억불)
일평균 수출액	**'21년 1분기 (22.2억불)**	'18년 1분기 (21.6억불)	'14년 1분기 (20.7억불)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 수출의 흐름과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해, 올해 **연간 수출액을 지난해 대비 18.1% 증가한 6,053억불로 상향 조정함** (이전 전망, '20.10월 : 10.1% 증가한 5,643억불)

○ 이는 **'18년의 6,049억불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이며, 교역 규모도 **1조 1,545억불**로 **무역 1조불 달성**을 예상함

○ 다만,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글로벌 버블 붕괴 우려, 원화 절상 가능성 등의 **하방 리스크 요인**이 있어 2분기 이후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말함

수출 신산업 관련 토론

□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던 **5대 新산업*** 분야의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전반적인 업계 시황, 수출 호조요인**과 **위기요인** 등을 되짚어 보고,

* 신산업 5대 품목 :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헬스, OLED

○ 글로벌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향후 과제와 정책 제언 등을 함께 논의함

□ 이 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유망 품목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은 선전 중이며, **1분기는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1위**를 달성했다."며

○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확실한 수출의 반등과 무역 1조불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

□ 이어, 성 장관은 "그러나 최근 물류와 부품수급 차질에서부터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크고 작은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 "우리 수출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들의 발굴과 육성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또한 **수출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등 **위기에 강한 수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핵심 도전 과제"라고 말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김동기 사무관(☎ 044-203-40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